

## WEA-한기총, 2014년 WEA 총회 일정 확정

200여개국 1만5천여 지도자들 참석 예정

129개국 6억여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세계복음연맹(WEA)의 2014년 한국에서의 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김자연 대표회장, 이광선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공동회장, 박중선 총무협의회 전 회장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 지난 9월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WEA 세계본부를 방문하고, 제프 터니클리프 WEA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2014년 총회 일정 전반에 대해 합의했다.



한기총 대표단이 WEA 뉴욕 본부를 방문, 2014년 한국에서 열리는 WEA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한기총

2014년 WEA 총회는 10월 마지막 주간인 27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또 총회 기간 중 교회 대표들이 세계 평화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WEA 총회에 1년 앞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는 2013년 10월 28일~11월 9일로 일정을 확정된 바 있다. 매 6년마다 개최되는 WEA 총회는 각 국가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교회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전 세계 복음

주의 교회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2014년 총회에는 그동안 활동을 드러내기 힘들었던 국가의 교회들까지 참여할 예정이어서, 총 200여개국에서 1만 명~1만 5천명에 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한기총의 그간 상황을 설명하고, 'WEA 총회 한국 유치 감사에 배'와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오는 11월 중 서울에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갖기로 했다. 감사예배 출범식은 당초 WEA 총회

한국 유치가 2010년 7월 확정된 후 2010년 11월에 진행하기로 했으나 올해 3월로 한 차례 연기됐었고, 한기총의 리더십 부재 상황으로 무기한 지연돼 WEA 각 회원기구들과 한국 교계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한기총 공동회장 홍재철 목사가 WEA를 예방해 WEA와 한기총 지도부간의 회동을 주선했고, 이에 김자연 대표회장과 이광선 직전 대표회장이 대표단을 구성해 WEA 세계본부를 전격 방문, 총회 일정을



WEA 뉴욕 본부에서 기념촬영을 가진 WEA와 한기총 주요 관계자들. (왼쪽부터 순서대로) 박중선 전 한기총 총무협의회장, 이광선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제프 터니클리프 WEA 대표, 김자연 한기총 대표회장, 정재현 WEA 북미 이사, 홍재철 한기총 공동회장. ©WEA 홈페이지

확정함에 따라 이제는 WEA 총회 준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기총은 2009년 6월 WEA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한편 한기총 대표단은 WEA 방문 후

9.11 테러 10주기 관련 WEA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류재광 기자

## “전임 사역자 바통 이어받아서, 전통 이어갈 것”

인랜드 교회, 최병수-박신철 목사 아름다운 세대교체 이뤄

박신철 목사 “두려운 자리...작고 초라한 자 쓰시는 주님을 의지”  
 “1세의 재부흥 통해 2세들을 이끌고 감으로 모두 건강한 교회 꿈꿔”  
 최병수 목사 “실버 미니스트리 통해 남은 사역 돕는 목회 펼칠 것”



(왼쪽)최병수 목사와 박신철 목사

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처럼 세대교체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세대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하

기 위해 조기 은퇴를 선언한 인랜드 교회 최병수 목사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청빙 위원회를 구성해 청빙작업을 진행해왔다. 인랜드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 성별과 직책 별로 구성해서, 향후 후임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할 당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시무장으로 9명을 뽑기로 하는 등 독특한 청빙 절차를 밟아 오며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까지 이르게 됐다. 최병수 목사와 박신철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목회는 마라톤이랑 같아 이어달리기, 라고 생각한다.”라며 “전임 목사가 건네준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후임 목사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어 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 조기 은퇴하시고, 청빙 절차를 보면 독특하고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박신철 목사님을 청빙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최병수 목사-“저희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어디서 목회 잘하고 계신 분을 모시기 말자, 우린 좋을지 모르지만 왜 그 교회를 힘들게 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데 같은 교단 목사님이면 좋겠다, 는 생각이었는데 같은 교단 소속인 외상탄중앙장로교회 선임 부목사이신 박신철 목사님이 인랜드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을 보내주신 것이 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 내에 흘렀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65세까지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3년 앞당겨 진거죠. 목회를 30년 했으니,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님들을 도와드리려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이 맞아 떨어지면서 젊은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미래의 그림을 그리

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림대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청빙위원장도 장로님이었고, 저는 실질적으로 청빙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았습니. 박 목사님하고도 처음 만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의 머슴으로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다음주 신문은 정기휴간으로 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주 관 : PCA 한인서남 노회 전권 위원회

## 담임목사 임직 및 시무장으로 안수식 감사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인랜드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임직 및 시무장으로 안수식 예배를 제 57차 PCA 한인서남노회 후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PCA 인랜드교회 교우일동 -

**담임목사 임직**

**박신철 목사**

**시무장으로 안수**

**백상철**

**이중의**

**일 시 : 2011년 9월 18일 (주일) 오후 4시**  
**장 소 : 인랜드교회 예배센터**

[www.inlandchurch.org](http://www.inlandchurch.org)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지상명령 실천하는 'Call2all LA 국제 전략회의' 열린다

## 김정한 선교사, "국제 리더들과 회의에 참여하는 큰 기회"

"나는 Call2all이 우리 생애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Call2all 집회는 행사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만나게 되는 전략 회의입니다. 50년 이상을 넘게 사역을 해 오면서, 이처럼 모든 단계가 함께 모이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운동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전 세계의 선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 로렌 커닝햄 목사(국제예수전도단(YWAM) 설립자)

전세계 기독교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논의하며 전략을 짜는 'Call2all LA 국제 전략회의'가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4박5일간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Call2all(대회장 마크 앤더슨 선교사) 관계자들은 9일 오전에 미주복음 방송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를 설명하고 한인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는 마크 앤더슨 선교사와 김정한 선교사, 양태철 목사, 서민정 간사가 참석했다.

이 국제 회의는 미전도 및 미개척 종족 내의 사역과 세계 기도 운동의 확장, 교회 개척, 복음 전도, 다음세대에 관하여 자리가 마련되며, 비즈니스 같은 사회 핵심 영역(미디어, 교육, 정부, 과학 등)의 리더들이 참석해 사회 안의 재 복음화를 위한 논의와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주요 발표자는 로렌 커닝햄(YWAM), 스티브 더글라스(CCC), 라인하르트 본케(Cfan), 루잉글(theCall), 폴에실턴(FTT), 제이슨 마 등 약 80여명의 리더들이 참석할



왼쪽부터 김정한 선교사, 양태철 목사, 마크 앤더슨 선교사, 서민정 간사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회의에서 특별히 모든 사회의 리더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맞추며, 마지막 날에는 the Call(루잉글)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뤄 전 세계 7대륙을 위해 기도하는 'Global

Call'을 7시간 동안 가진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사회 각 분야(가정, 교회, 교육, 정부, 비즈니스, 미디어, 과학기술 등)의 관계자이며 웹사이트에 등록 시 자신의 분야를 함께 등록하게 된다. 주요 스킴줄은 오전

에 분야별로 함께 테이블에 앉아 주제에 맞게 서로 토론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지며, 오후에는 각 주제에 맞는 워크샵이 80여개 이상 준비된다. 저녁 세션에는 주요 발표자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오후 워크샵 시간을 제외하면 다른 오전, 저녁 세션은 통역기를 사용한 동시 통역이 준비되며, 16개의 워크샵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한 선교사는 "이번 국제 회의는 한인 커뮤니티에 큰 기회"라며 "국제 리더들과 함께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all2all은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 라는 뜻으로, C.C.C 창립자 힐 브라이언트 박사가 2003년 봄, '전세계 5백만개 교회 개척을 통해 10억명을 전도하자'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힐 브라이언트 박사가 2003년 7

월 소천한 후 2004년 12월에 모인 65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비전을 위해 함께 일하기로 동의하면서 운동이 구체화 됐다. 이들은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GPN(Global Pastors Network)을 조직했고, 2007년 GPN은 'Call2all'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 Call2all의 첫 번째 전략회의는 2008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됐으며, 그후 전 세계의 각 지역에서 15회 이상의 전략회의가 개최됐다. 한편, 이번 회의 등록은 159불이며, 그룹 등록은 가격이 다양하다. 기한은 제한이 없으며, 회의 당일 등록할 경우 200불 이상으로 올라간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www.call2all.org 혹은 408-314-3887(서민정 간사), 714-350-6957(김정한 선교사)로 하면 된다.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 나성순복음교회, '911 새 생명 전도축제' 풍성함 넘쳐나

### "하나님 영접할 때 우리 삶을 요셉같이 최고의 스토리로 인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911 새 생명 전도축제를 1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회 교역자들이 예배를 따뜻하게 섬겼으며, 100여명의 새신자들이 참석하고, 깊은 신

앙심으로 여러 차례 미주한인교회 간중집회 및 연주회를 가진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가 참여했다. 박지혜 자매는 한국 TV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해 유명세를 떨친

바 있으며, 뛰어난 재능으로 독일 전제 종연방 청소년 콩쿠르 2회 연속 1등, 2007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를 이끌 미래의 연주자로 선정됐으며, 2003년부터 독일정부 예술부 무상으로 4백만 달러 가량의 1735년 산 명기 <페루르스 가르네리>를 대여 받아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박지혜 자매는 이날 '왕비의 비행' '내가 매일 기쁘게', '차르다스' 등 7곡을 연주하며 간증을 전했다. 박 자매는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비전을 심어주셨던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자 든든한 배이셨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즐기면서 노력했을 때 끊임없는 에너지를 부여 주셨다."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동안 3-4시간 밖에 안자며 연습했던 연주의 노력



박지혜 자매

과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정도로, 2-3년 동안 바이올린을 잡지도 않고 내가 쓰러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내가 우울증을 겪어서, 다른 사람들이 패인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부여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백마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힘과 에너지를 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증했다. '최고의 스토리를 쓰는 인생'(장 50:19-



나성순복음교회에서 911 새 생명 전도축제를 1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했다.

2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진유철 목사는 "소프트 파워의 메시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힘도 이길 수 있다. 소프트 인생에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노예였지만 최고의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지만 정직하게 행동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정직하게 유혹을 뿌리쳤다. 그리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갇혀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애굽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꿈을 그려주시고 컨텐츠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받아들일지 안받아 들일지는 내가 결단해야 한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교우들에게 결단을 당부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교역자들의 섬김과 박지혜 자매의 화려한 연주로 풍성함을 더했다.

토마스 맹 기자

##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일한 직업 추천

1. 메디칼오피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2. 비즈니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아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 120만급, 방문비자 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ORT 졸업 후 워크퍼밋, 소살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 인랜드 교협 9월 월례회 열려

인랜드 교회협의회 월례회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에렌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마원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1부 예배에서 윤석길 목사의 설교, 최병수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예제미가 7:4절을 본문

으로 설교를 전한 윤석길 목사는 "예배의 실패는 모든것의 실패다"라며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야 한다" 전했다. 한편 13년간 인랜드교회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 2기 사역인 '시니어목회사역'을 시작하는 최병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규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토마스 맹 광고국장: 이인규  
지사망: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LEE & KENT LAW FIRM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유자격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LJ)대학원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협회법 연방법원 및 세법경찰 영회법 변호사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국이주 영안회(ISA) 협회회법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회장 미주 성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sins, Brothens, 칸루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및 추천 건 해명

###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 1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비자거절·항소

### 2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상법(계약체결·위반)

### 3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신용 문제 상담

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 17호 02-541-0556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 피종진 목사 초청, '남가주 한인 선교대회' 16일부터



(왼쪽부터) 김영모 목사(목사회 부회장), 박효우 목사, 정요한 목사

### 남가주목사회 개최, '신선한 영적인 바람 일어나길'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에서 피종진 목사를 초청, 남가주 한인 선교대회(이하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선교대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린다. 16일부터 17일까지는 저녁 7시30분, 18일은 오전 11시에 집회가 개최된다. 박효우 목사는 12일 오전에 JJ그랜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가주에 신선한 영적인 바람과 교계를 리드해갈 수 있는 바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종진 목사는 남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이며, 한국복음화 운동본부 대표총재, 세계복음협의회 대표총재로 있다. 피 목사의 아들은 20일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사회는 목사 신분증 신청을 9월 말까지, 설교집 원고 접수 마감을 9월2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목사회 총회는 11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토마스 맥 기자  
thomas@chdaily.com

# PGM 선교신학포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10월18일~ 19일까지...세계적인 선교신학자, 목회자들 참석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세계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선교회에서 오는 10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세계적인 한인 선교신학자, 목회자들을 초청해 PGM선교신학포럼을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PGM선교신학포럼에서는 PGM이 추구하는 4가지 핵심가치(△디아스포라선교 △평신도전문인선교 △Here & Now선교 △교회중심의 선교)에 대한 정확한 선교신학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여 나갈지 전략적으로 세계선교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과 결실이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포럼 강사에는 영국 오스포드 선교신학원의 마윈석 박사를 비롯, 미주이민신학연구소장 오상철 박사, 위클리프(Wycliffe) 선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 선교사와 지역교회 동원사역자 오정호 선교사, 한국 사명의 교회 선교사사무처장 유승관 목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과 이론을 겸비한 사역자들이 포럼의 발제와 응답자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 신학자 등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이번 PGM선교신학포럼기간 동안 PGM정책이사회와 KIMNET(세계성공회동원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17주년 기념 성회가 함께 개최된다.  
문의 : www.pgmusa.org  
토마스 맥 기자

## ▶ 1면 '전임 사역자 바통 이어받아' 에서 이어집니다.

▷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 하시게 되었는데, 각오라든지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박신철 목사-“첫 번째는 죄 목사님께서 달려오셨던 바통을 잘 받아서, 속력을 늦추지 않고 이어 달리게 하는 것이 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인랜드 교회 비약적인 발전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목사님께서 해 오신 사역을 잘 발전시키고 심화시켜겠습니다. 또 베스트 제너레이션, 2세 3세 1세들의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이민 사회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목사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심미 미니스트리도 잘 이어 가야 하거든요. 2세 교육에서도 1세 헌신만 강조해서 안되고, 1세도 제 2의 부흥을 이어가야지, 2세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2세를 위해서 1세들이 은혜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생각의 풍성함을 다시 누리야지 자발적 헌신이 나온다고 봅니다. 65세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 경제적으로 희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공급 받는 분들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사회 곳곳에 봉사자들을 보면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 이런 사역의 장을 만들어드리고 가치를 더할 때, 비로소 교회는 아이와 청년,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인랜드 교회가 포모나 시에 위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랜드 교회 옆에 걸어서 3분 거리에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95%가 히스패닉계이고, 교회 근처 사는 사람들이 95% 이상 히스패닉계이죠.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과 지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최- “그동안 기본은 만들었습니

다. 하이스쿨에 장학금을 조금씩 지원해 왔는데, 마지막 설교를 한다니까 포모나시 시장, 학교 교장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니가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이 고마울 뿐이죠. 박 목사님이 지역 사회 섬김을 더 발전시켜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후임 담임목사가 할 일은 앞으로 20-30년 후의 인랜드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성경에 보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체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민 교회들의 지역 사회 섬김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똑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마다 각자의 일을 함으로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합니다. 목사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발견하고 그것이 구체화 될 때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어납니다.”

-한인교회가 히스패닉계를 위해 문을 열고,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모범적으로 해야 할 텐데, 교회 예배당을 빌려주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과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케이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 “지금까지 여러 번 접근하다 실패를 해왔습니다. 남미에서 목회를 펼쳤던 사역자를 불러서 히스패닉 사역을 펼쳤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리서치를 해봤더니, 한인교회가 히스패닉계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파킹장에 들어가 보면 벤츠, 렉서스 등

이 주차돼 있는 것들을 볼 때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풀고 있는데, 히스패닉은 앞으로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유치원 시작해서 무료로 (히스패닉)아이들을 돌보도록 하자, 고 해서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왔지만, 집에서 베이비시터하는 히스패닉 분들이 우리 잡을 뺏어간다. 는 컨볼레인이 와서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공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히스패닉계도 아시안과 같이 학구열도 있어서 애프터 스쿨을 만들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성적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감이 있다면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장로님을 통해 이야기해 들었는데,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 다. 정말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저의 마음을 가득 메웠던 것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중에 복에 복을 더 하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남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거든요. 능력을 벗어난 어떤 사명을 받았으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두렵고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고 하셨는데 정말 나중에 그 마음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가 더 기도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는데, 지금도 두려움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도네시아 교회는 풀고 있는데, 히스패닉은 앞으로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히스패닉계도 아시안과 같이 학구열도 있어서 애프터 스쿨을 만들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성적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병수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사역을 말씀하신다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돕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 30년을 해오니까 실버 미니스트리 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하는데, 부모들에게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인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일감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버미니스트리 센터(가칭)를 세워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미주 전국에서 사역을 펼치면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토마스 맥 기자  
thomas@chdaily.com

# 킹덤드림 아카데미 주최 '성막체험 캠프 개최'

아이들, 성막체험에 깊은 관심...감동적인 경험

2세 아이들을 위한 이색적인 캠프가 열려 화제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남가주광영교회(담임 정우성 목사) '성막체험캠프'가 개최됐다. 킹덤드림아카데미(회장 정한나 사모) 가을학기 개학 수련회로 진행된 이날 캠프에서 아이들은 전문강사에게 성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막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은 처음으로 보고 만들어보는 성막체험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19일 저녁시간에 진행된 세족식에서는 아이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감동적인 경험을 했다. 이 캠프를 준비한 정우성 목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성막 안에 있다”며 성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성막안에 담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면 아이들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킹덤드림 아카데미 성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강의하게 된다”며 많은 자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남가주광영교회 부설로 지난 5월 개원한 영성과 실력, 지혜를 갖춘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요학교인 '킹덤드림 아카데미'는 5-12세(K-6학년)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 중이며 수업료는 받지 않고 월 20달러의 점심값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 213-500-2186  
이인규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께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CA LIC #0G67882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www.pgmusa.org

# PGM 선교신학포럼

선교 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PGM 선교신학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 Here & Now 선교
- \* 전문인 선교
- \* 디아스포라 선교
- \* 교회 중심의 선교

Oct. 18(화) ~ Oct. 19(수). 2011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포럼 참석자**

오상철 박사 (미주이민신학연구소장)  
김성훈 선교사 (Consultant of Diaspora Ministries in Wycliffe Europe and UK,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Diapora, Oxford)  
송상철 목사 (아들란타 새한장로교회 담임)  
유영기 목사 (L.A.나성복부교회)  
마윈석 박사 (Executive Director, David Yonggi Cho Research Tutor of Global Christianity,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김정환 선교사 (SON Ministry 대표)

이은무 박사 (KIMNET 사무총장,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전 GP 국제 대표)  
유승관 목사 (한국 사랑의 교회 세계선교부 사무총장)  
최재선 선교사 (경제학박사, C국 전문인선교사)  
이형석 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정민용 목사 (Covenant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  
오정호 선교사 (Director, Korean Church Relations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위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선교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PGM선교신학포럼을 가지하고자 합니다.

\* 이번 포럼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PGM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pgm@pgmusa.org / Tel. 610-397-0484)  
\* 포럼기간동안 PGM정책이사회와 KIMNET정기총회,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17주년 기념성회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 신앙정절과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18-29

장 재 효  
서울성은교회 목사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가 내 종들을 가르쳐 띄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도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

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

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서 동북쪽으로 180리 정도 가면 두아디라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지금도 옛날처럼 구리를 많이 캐내어 여러 가지 생활 기구를 만들어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무역으로 산업과 상업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14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게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친정 고향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지금의 불가리아인 항구도시가 빌립보인데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가서 물들이는 옷감을 구해 행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공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세계 선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인 두아디라에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불꽃같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실질적인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 만든 것인데 예수님도 세상을 사시는 동안 엄청난 환란과 행패,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까지 엄청난 연단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33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신 일이 없고 어떤 행패와 고통을 당하셔도 다 이겨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빛난 주석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사업을 그 서두에 말씀

하시고 두 번째로 사랑을,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내세소망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육신이 세상은 날 돈 더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첫째 목적이었다는 것과 이들의 사랑은 진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사업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일로 구리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과 옷감을 물들이며 파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진리 정통한 교리적 신앙이 바로서지 못했습니다.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우선이었고 섬김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면과 명분을 앞세운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통한 신앙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로 인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은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교회의 지도급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도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에 입각하여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믿음의 정절과 주대를 지켜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9:6-37사이에 이세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바알(풍요의 신)과 아세라(다산의 신)라는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궁 안에 신앙을 놓고는 믿음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숫자는 늘어갔고 하나님의 벌로 긴 가뭄이 있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기도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에 이세벨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아합 왕 때의 이세벨이 했던 역할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이단을 끌고 들어와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이 이단을 추종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과 이 여자와 육체적으로

음행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자들처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침상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큰 환란 가운데 던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의 씨도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이겨냈기 때문에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덧붙일 말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교회에서 직책과 직분에 따라 맡겨진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뿐 아니라 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신문설교 선교

한국	CBS TV 수요일 오후 8:40 / CTS TV 금요일 오전 6:00 / 기독교 연합신문 3면 설교문
미국	워싱턴 D.C. CBS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8:00 워싱턴 D.C. COX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12:00 토요일 오전 7:00, 주일 오후 10:3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30, (동부) 오후 6:30 토요일 (서부) 오후 6:00, (동부) 오후 9:00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 설교

장재효 목사 :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선목회 회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총재.



#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진인 치유 사역은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편입생 모집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mailto:gsu_inc77@yahoo.com)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갱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테로이드성 분뇨,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	---

예약 전화 : 562-965-5112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 2만명 전도한 김인호 검사가 추천하는 전도법은?



김인호 검사

“하늘의 특별 검사”의 저자, 김인호 검사(현 광주고등검찰청 수석부장, 명성교회 장로)의 간증집회가 10월 11일, 워싱턴성광교회(담임 임용우 목사)에서 열렸다. 김인호 검사는 서울대법학과에 입학해 최연소(당시 대학 3학년)로 사법고시에 합격,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부임한 엘리트지만, 어울리지 않게 ‘바보 검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느리지만 힘 있는 말투와 특유의 유머감각으로 간증집회를 이어간 김 검사는 어릴 적 경험과, 전도의 사례를 진솔하게 나누어 교인들에게 웃음과 함께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갓난아기 때 젖을 먹지 못해 40일 간 사경을 헤맸다. 도무지 살아

## 바보검사 김인호 장로 간증집회, 워싱턴성광교회에서

날 소망이 없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젖을 먹고 살아났다. 살아난 게 기적이었지만 뇌세포가 많이 손상돼 병어리가 됐다”며 어릴 적 경험을 소회했다. 김 검사는 “말은 하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병어리로 살았다. 자폐증도 않았고 그야말로 중증환자였다”고 회고하면서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했다.

어릴 적 2만 명을 교회로 인도한 김인호 검사는 “나도 전도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으로 가슴을 쥐어뜯지 말라. 의외로 해답은 간단한 곳에 있다”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한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목동제자교회에 초청받아 간증 집회를 하고 일주일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파트에 수리할 것이 있어서 사람을 불렀는데, 마침 목동제자교회에서 간증을 들은 김승렬 집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팀장이어서, 저를 무척 반가워 했습니다. 김 집사는 ‘검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동안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앞으로 나도 열심히 전도하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 현관에 있는 ‘어느 검사의 이야기’라는 제 간증 CD를 한 움큼 쥐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는데 가져가

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두 가지고 가라고 말했지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이 아파트 수리를 해주러 가는 집마다 제 CD를 주고는 내일 다시 올테니 꼭 들어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수천세대가 삽니다. 사실 기도하고 있었습니 다. ‘주님, 이 아파트의 수천세대를 산지로 주소서.’ 제 아내도 터무니 없는 기도라고 면박을 주었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작은 것 ‘기도’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김승렬 집사님을 통해 이뤄주셨습니다. 그 분이 수리를 하러 가는 집마다 하나 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 검사는 간증 사례 하나 하나를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사건 ‘FACT’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ACT(사도행전)’가 된다고 강조하는 그는 한 신실한 친구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섬기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실하던 친구였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대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말하면 다 알만큼 큰 성공을 거뒀는데, 출세하고 나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권면하려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는 귀찮아

졌는지 더 이상 제 전화번호가 뜨면 받지도 않았습니 다. 어느 날은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받지 않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내가 실로 뭍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를 찍어 보냈습니다. 같이 있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낸 것입니다. 몇 분 후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사느니 죽을 결심을 하고 한강 다리에 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마침 메시지가 들어와 보니 성경구절이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진리는 문자 메시지에도 적용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김 검사는 전도하고 싶은 약 3천명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 시켜놓고 있다. 생각날 때 마다 성경구절을 보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하면 없습니다” 워싱턴성광교회의 구호를 외치는 김 검사에게 교인들은 힘찬 ‘아멘’으로 응답했다. 간증집회는 10월(토) 오후 7시, 11일(일) 1,2,3부예배(오전 8시, 9시30분, 11시)에 진행됐다. 권나라 기자

# 행복한 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로부터 시작한다

한기홍 목사,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 재충전 가능”



한기홍 목사

워싱턴 지역 한인 교회협의회(회장 배현수 목사) 주최 ‘2011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목회자(5절)가 건강한 목회자’라며 “디모데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를 권면해 건강한 사역자로 회복시킨 바울의 사역을 보면,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멘토와 중보기도 사역자 그리고 재충전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목사는 “새벽기도를 마친 후 교회정원을 거닐며 QT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흘러야 진정한 쉼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쯤이 되면 30분 동안 낮잠을 잔다. 낮잠을 자면 하루에 이틀을 사는 것처럼 사역을 힘차게 할 수 있다. 또한, 심방과 사역을 즐기면서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처럼 무엇보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 재충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요한 기자

# 뉴욕교협 지도자 컨퍼런스 개막

120여명 참석, 목회 노하우 나눠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주최하는 ‘2011 지도자 컨퍼런스’가 9월 12일 스프루스레이크 리트릿센터에서 시작됐다.

교협이 이례적으로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교계 목회자들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친교의 장을 제공하고, 산상 가운데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강의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컨퍼런스에는 목회자, 장로, 사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 개회예배로 일정을 시작,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는 특별강의를 통해 목회의 노하우

를 나눴다. 서임중 목사는 “목회할 때는 농심(農心), 모심(母心),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가야할 길”이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길을 즐겁게 가자”고 당부했다.

첫날 저녁에는 김영길 목사의 ‘목회의 발전에 대하여’ 강의가 이어졌다.

둘째날에는 박희민 목사의 ‘목회자와 제직간의 관계’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낮에는 미니올림픽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주이 기자 joociee@chdaily.com

**오토뱅크 Auto Bank**

\$1,000 ~ \$7,000 중고차 다량 보유

저렴한 차 사고 판니다.

충분한 워런티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30%DC)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 자수아 리 목사,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세울 것”

버지니아 거광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

버지니아 거광교회가 9월 11일 담임 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로 자수아 리 목사를 세웠다.

버지니아 거광교회는 지난 2003년 5월 노규호 목사가 개척했으며, 2009년 6월 맑은시내교회와 통합한 바 있다.

이취임예배는 이필립 목사의 대표기도, 홍장춘 목사(버지니아 거광교회 원로목사)의 설교, 노규호 목사의 이임사, 채홍석 목사(온마음교회 원로목사)의 권면, 자수아 리 목사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홍장춘 목사는 사도행전 5장 33-42절을 본문으로 “굴함이 없는 사도들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귀한 직분을 맡고 난 뒤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던 사도들의 신앙을 묵상할 것”을 권면했다. 또한, 홍 목사는 “이 목사가 양(성도) 한명 한명의 음성을 잘 듣고 살릴 수 있는 목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목회에 임할 것”을 축원했다.

조요한 기자

#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9월 26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

한국의 경기도 안양소재의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인 조성근목사가 LA에서 기도성회를 인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



강사\_ 조성근 목사

-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담임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GST대표
- KWMA 운영이사
- 홍신대학교(Th.M/Th.D,cand)
- 미국 ORU(D.Min)

1차 9월 27일(화)~10월 1일(토)  
2차 10월 3일(월)~10월 6일(목)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  
\* 주일은 케르셀성당을 하제 않습니다.

3407 W 6th St, Suite 800  
Los Angeles CA 90020 (로얄빌딩)  
안내전화번호 213.514.0039 / 213.393.3131

일시

장소

주최

Galmlsan 금식기도원  
www.galmelsan.or.kr

# 페미니즘으로 회귀하는 기독교 여성들

정치적인 소명과 사회적 목적과 기독교를 가까이 받아들이는 새로운 부류의 페미니스트들이 부상하고 있다. 사라 패일린(Sarah Palin)과 미셸 바크먼(Michele Bachmann) 의원 등 보수적인 기독교 여성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스크립스하워드뉴스서비스(Scripps Howard News Service)의 칼럼리스트이자 'It Takes a Parent'의 저자 벤티 할트(Betsy Hart)는 "페미니즘이란 용어는 비기독교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가져왔다."며, "기독교인과 젊은 비기독교 여성을 포괄해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페미니즘에 대해, 매우 화난, 남성을 혐오하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며, 매력 없는 불행한 여성을 연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패일린과 바크만 같은 기독교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를, 보수적이고 친생명적이며 직업에 대한 소명을 지니는 동시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 포용하는 여성으로 재정의한다.

2010년 연설을 통해 패일린은, 그녀 자신과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연관성을 끌어내며, 그 용어를 여성성이 여성 자신의 성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이 강하고 친생명적인 기독교인으로 재설정했다. 바크만은 부분적으로는 그녀 자신의 여성적 직관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점 더 많은 보수적 기독교 여성들이 페미니즘의 초기 뿌리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모방할 많은 것들을 찾게 한다.

미국을 위해 걱정하는 여성(Concerned Women for America)의 베벌리라하에 연구소(The Beverly LaHaye Institute)의 아시아자 선임연구원 제니스 쇼 크라우즈(Janice Shaw Crouse) 박사는 "신앙을 지키고 있던,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은 매우 독실했으며 성경이 여성을 남성과 평등하게 대하며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할트는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법적인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재창조되었다."고 덧붙였다. 페미니스트 운동은 19세기에 사회적 목표와 투표권에 초점을 맞춰 시작됐다.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Elizabeth Cady Stanton)과 수잔 앤서니

(Susan B. Anthony)등 페미니스트 선구자들은 노예 제도의 폐지와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 투쟁했다.

크루이즈는 "오랫동안 비기독교 페미니스트들과 종교적인 페미니스트들은 평등이라는 같은 정의를 위해 활동했다."라며, "그러나 지난 30년 사이 변화가 일어났다. 페미니즘은 직업 할당과 임신부 요구에 의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과 레즈비언들에게 떠맡겨졌다."고 말했다.

낙태와 직업 할당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는, 많은 기독교 여성들을 페미니즘 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몰아냈다. 할트는 "기독교 여성들은 귀에 거슬리는 말들과 여성의 정치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으로부터 뒷걸음질 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21세기까지 지속되어 온 변화 속에서, 많은 비기독교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을 적으로 보았으며, 이는 기독교 여성들을 그 운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또 다른 이유로 작용했다. 크루이즈는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높이 산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일터는 비기독교 페미니스트들과 기독교 여성 사이의 분쟁의 부분이 되고 있다. 기독교 여성과 비기독교 여성 사이의 직업에 대한 긴장은 두 그룹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된다. 기독교 여성들은 직장 내 표창이나 승진을 구하지 않는 대신, 자신들의 직업을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소명의 한 부분으로 본다.

크루이즈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여성들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전과 책임감 때문에 일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기독교 여성들은 보수적 수입으로 가족을 돌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며 그들의 일을 직업으로 여기거나 그들 자신을 직업여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자신의 남편을 돕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현대 비기독교 페미니스트들과 판이하게 다른 관점이며, 여성이 된다는 것에서 근본적인 불일치이며, 상이한 세계관이다." 많은 기독교 여성들은 그들이 일과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했다. 할트는 "기술의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해낼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기독교여성들은 여성들을 위해 언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닦은 초기 페미니스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은 초기 종교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이상주의로 회귀하는 반면, 기독교 공동체들은 계속해서 현대 비기독교 페미니즘과 싸우고 있다. 기독교와 페미니즘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와 페미니즘에 대해 저술하고, 강연한 마르디 카이즈(Mardi Keyes)는 "그는 인종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무시를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회적 금기를 깼다."고 말한다. 카이즈는 "예수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었던 세계에 들어오셨다."고 말한다. "그의 가르침과 행동에 의해, 그는 계속해서 그의 문화의 가부장적 기준에 도전했다. 예를 들어, 예수는 그의 제자 여행에 그들을 포함 시킴으로서 여성을 분리하고, 침묵하게 하는 관습을 거부했다."

카이즈는 포르노그라피, 강간, 근친상간, 가정 폭력, 근무 상태와 심지어 낙태와 싸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 페미니스트들의 동맹을 지적했다. 카이즈는 "현대 페미니즘은 섹스와 젠더에 관한 신학을 재검토하기 위해 교회에 도전해 왔다."고 말한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절름발이들, 눈먼 자들, 갇힌 자들과 모든 억눌린 자들에게 가져왔던 복음이 참으로 여성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성서와 관련된 모든 학문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한다."

크루이즈는 "나는 오늘날 기독교 여성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흥분된다."고 말한다. "오늘날 특출한 여성들의 목록을 관찰해 보면,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가능성을 이용하는 여성을 찾길 원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는 수 백명의 충분히 헌신된, 복음주의 여성들이 있다."

주디 한 기자

#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는 노스포인트처치, 1위는?

### 아웃리치매거진, 2011년 가장 큰 100대 교회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교회 발표

아웃리치매거진이 9월(금), 2011년 미국에서 가장 큰 100대 교회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교회를 발표했다.

가장 큰 교회는 지난 해에 이어 텍사스 휴스턴의 레이크우드처치(담임 조엘 오스틴 목사)가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성도수는 작은 마을 인구수와 비슷한 4만 3천 500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다.

이해 매거진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거나 최근 몇 년간 교회 성장의 가장 강력한 흐름이기도 한 '멀티 사이트 처치'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거진은

부터 배워야 하는 10가지 교훈을 통해 어떤 규모의 교회와 목회자들이라도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 방문자들은 익명으로 남아있고 싶어하고, 자신들에게 맞춰진 예배의 경험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새로운 방문객들을 구경단 단계로만 남겨두면 안 된다. 기독교는 신앙의 성숙을 지향한다. 목사와 교사들의 목표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다. 많은 매거치처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옮겨지도록 의도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박현희 기자  
hhpark@chdaily.com



아웃리치매거진

# 예수소망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드려

### 〈 스와니 H마트 인근, 2만 스퀘어피트 규모 〉

예수소망교회(담임 박대웅 목사) 새 성전 입당감사예배가 11일(주일) 오후 5시 교회 본당에서 개최됐다.

스와니 H마트 인근에 위치한 새 성전은 2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400석의 예배당과 친교실, 성가대실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날 예배에는 교단관계자 및 축하객들이 성전을 가득 매웠으며 대표기도(권영갑 목사), 설교(정인수 목사), 축가(연합장로교회 여성 3중창, 베다니장로교회 남성중창단), 축사(김삼영 목사, 최병호 목사), 광고, 축도(최

훈민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복한 교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는 "교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연약하다. 하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목사는 또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교인들이 사랑의 헌신을 배우고 실천케 하는 교회, 진실을 향한 헌신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 한다. 이것들을 통해 진실한 인간됨을 회복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라"고 당부했다.

축사를 전한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 담임)는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으라.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위치하는 축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이곳을 향하길 기도하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만큼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든 순서가 마쳐진 후 친교를 나눈 친교실에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피터 호 성교사 초청 성화 전시회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앤더슨 기자  
anderson@chdaily.com



## 웨이스 기독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SEVIS**  
I-20  
상당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본교의 특징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Indian University
  - ③ Lee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⑤ Oral Roberts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6.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 매달학생회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 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상담학 Ph. D.	신학 Ph.D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64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 503-5330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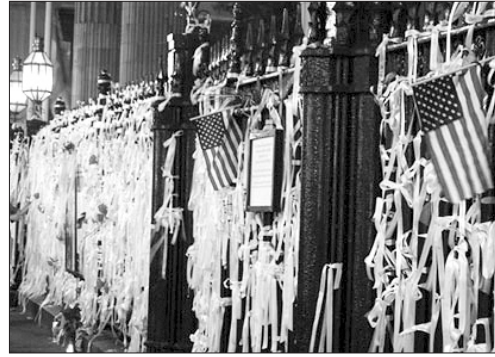
# 뉴욕 가득 메운 9.11 추모 열기



트리뷰트 인 라이트가 빛나고 있다.

9.11 테러 10주기를 맞아 미국 뉴욕에서는 추모 행렬이 밤 늦게까지도 이어졌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테러로 사라진 세계무역센터와 희생자들을 기리는 '트리뷰트 인 라이트(Tribute in Light)'가 빌딩 자리를 메우고 있다. 이 빛은 11일(이하 현지시각)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환하게 하늘을 비춘다. 트리니티교회는 올해 특별히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세인트폴교회 담장에 메시지가 적힌 리본을 묶어놓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세인트폴교회 담장은 하얀 리본으로 뒤덮였다.

윤주이 기자 jooiee@chdaily.com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흰 리본으로 뒤덮인 세인트폴교회 담장



트리뷰트 인 라이트가 빛나고 있다.



24시간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세계무역센터 재건 현장



구조 작업을 벌이다 희생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기리는 벽을 찾아 추모하는 이들

## 오바마 대통령, 9.11 추도식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9.11 발생 10주년을 맞은 11일 오전(현지 시각), 3천여 희생자들이 잠든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열렸다.

테러 당시 납치된 첫번째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시각인 오전 8시 46분, 블룸버그 시장의 인도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내용의 시편 46장을 모두 읽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편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날 앞서 발표한 9.11 테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용기와 회복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미국인에게 영감을 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추도식에서 1864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다섯 명의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읽는 것으로 연설을 대신했다. 이 편지는 “나는 어떤 말로도 소중한 것을 잃은 당신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아들들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일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 10주기 맞아 美 전역서 추모 행사와 특별예배



9.11 10주기를 기념해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백악관

당신의 분노를 아무만저 주시고 사랑스런 아들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테러 당시 뉴욕 시장이던 줄리아니 전 시장도 참석해 ‘전도서 3장’을 읽어 내려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10년을 견디기 위해 필요했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시각(perspectives)은, 전도서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로 시작하는 전도서 3장을 9절까지 읽어내려간 줄리아니 전 시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은 모든 영혼을 축복하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견디

는 많은 유족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길”이라는 말로 연설을 끝냈다. 이 날 추도식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추도식 후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내외들은 그라운드 제로 추모공원 앞에 세워진 노스 메모리얼 풀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도식에 이어 이 날 펜실베이니아 생스빌과 미국 국방부 등 10년 전 테러 공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3개 지역을 모두 방문했다.

손현정 기자

## 9.11은 우리를 슬프게, 그리고 감사하게 했다

### 미국 목회자들의 9.11 테러 10주년 메시지

9.11 테러 10주년인 11일(현지 시각) 미국 전역에서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 현지 목회자들도 이 날을 맞아 트위터, 설교,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소감을 전하고 있다.

● **릭 워렌(Rick Warren) 목사, 새들백교회**  
“이번 주말 미국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들이 가득 찰 것이라 본다. 위기의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께 다다르고자 부르짖는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모두에게 공통된 본성이다. 9.11 테러 사건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오, 하나님’이었다.”

● **존 파이프(John Piper) 목사, 베들레헴침례교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슬림 세계로 향하기 원한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그 동일한 열정과 갈망으로 말이다.”

● **조엘 오스틴(Joel Osteen) 목사, 레이 크루드교회**  
“9.11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비극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 되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 **리처드 랜드(Richard Land) 목사,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장**  
“9.11을 맞아 우리가 기도해줘야 하는 이들이 있다. 먼저는 테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며 다음은 모든 미국인과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적들이다.”

● **집 달리(Dale Gribble) 박사, 포커스온더 패밀리 회장**  
“9.11의 유산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과 편협함을 버리고 공공의 선을 위한 해결책을 추구하게 한 것이다.”

● **루이 기글리오(Louis Giglio) 목사, 패 션시티교회**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자유의 여신상은 굳게 서 있으며 그 자유의 횃불을 우리 모두를 위해 높이 들고 있다.”

● **J.D. 그리어(J.D. Greear) 목사, 서밋교회**  
“9.11은 많은 무슬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무슬림들 역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었다.”

● **밥 로버츠(Bob Roberts) 목사, 노스우드교회**  
“가장 큰 참사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인류애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 9.11은 나를 슬프게 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했다. 나는 예전에 몰랐던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손현정 기자  
hjsn@chtoday.co.kr

## 美 전역 1,300여 교회에서 9.11 10주년 기도 모임

테러 사건 10주년을 맞아 미국 50개 주에 걸쳐 있는 1,300여 교회에서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부르짖는 기도 모임이 진행됐다.

Awakening America Alliance(AAA)이 주관하는 기도 운동 Cry Out America는 주일이자 9.11 10주년 기념일인 이 날 특별예배를 드릴 것은 물론, 이 날을 계기로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도록 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 왔다. 대표인 빌리 윌슨은 “9.11은 우리 세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개우심의 사건”이었다며, “기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미국을 영적인 부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희망 속에서 준비되어 왔다”고 전했다.

기도 운동에는 현재 다양한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윌슨은 또한 이 기도 운동을 계기로 미국 교회가 하나

되어 미국의 부흥을 이루는 데 협력하기 원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를 나누는 것은 각자만이 가진 자존심이다. 이 자존심이 우리를 분열되게 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요구해야 할 것은 따라서 겸손한 마음일 것이다”며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했다.

손현정 기자

# 장로회국제연합신학대학 · 대학원

##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2011년도 가을학기 남 · 여 학생모집 (신입 · 편입 · 통신 · 장학생)

본 신학대학은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세상에 보내고자 합니다. 본 신학대학은 California 주 정부의 승인을 받고 Tax Regist No. 와 California Education School Code No. 도 받아 정식 등록된 학교로서 본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장로교회 국제 연합총회(Trinity International Presbyterian Alliance) 교단에서 목사안수 또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	교육학사 교회음악 학사 신학 학사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Church Music Bachelor of Theology
석사과정	기독교 교육학 석사 교회 음악 석사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선교학 석사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Theology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Missology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기독교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Missology Doctor of Christian Education Doctor of Theology Honorary Doctor of Divinity

가을학기 개강 : 2011년 9월 28일 (수)

입학안내 : 입학원서 본교소정 양식 1통

접수 : 수시로 입학

통신지원 : 수시로 입학

전화 : (714) 879-7952(FAX공용), 956-2900

주소 :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총장 : 정영수 박사 (Dr. Paul Jung; Ph.D., D., D. Min.)

대학원장 : 이종은 박사 (Jong Un Lee; D. D Ph.D)

## 장로회국제연합신학대학 · 대학원

■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714) 879-7952

※ 분교 : ① 하와이 분교 ② 학국 구미 분교 ③ 아리조나 분교

학장 : 한 미가엘 박사

학장 : 최인숙 박사

학장 : 서병만 박사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션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4부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 오후 7:30, 1부 Youth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요예배: 오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동,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태)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 주일예배- 수요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11시,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교동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새벽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EM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월-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월-토)  
 중교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홍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2,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새벽기도 · 심방 · 설교 지고, 컴퓨터 · 여성 · 마케팅 뜰 것”

## 이성희 목사, 한국교회발전연구원 강연회서 밝혀

“사회변동과 교회 환경변화로 인한 목회 패러다임의 변혁은 필연적이다.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들은 사회의 변화에 적응력을 상실한 채 교회를 장기적 침체 내지는 쇠퇴로 접어들게 할 것이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이성희 목사(연동교회)가 8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연구원 창립 예배 및 강연회를 통해 “구 시대적 목회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것”을 한국교회에 주문했다.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한 이 목사는 “변화를 요정하는 긴박한 시대를 맞아 교회도 변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회는 변화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흔히 한국교회의 목회는 새벽기도, 심방, 설교 등으로 인식됐으나 이제 이러한 목회 패러다임은 그 적응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컴퓨터 등의 발달로 기술발달과 정보교환이 교회에 요청되고, 교회의 소유개념보다 대여개념이 발달할 것이며, 교회 구조가 성직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다. 또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교회에도 마케팅 이론이 발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목사는 기존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묘하게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일치한다”고 했다. 각자가 성장 및 침체를 경

험한 시기가 비슷하고 성장에는 거품이 끼어 있으며, 내실보다는 외형을 보다 중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그는 “사실 한국교회 성장에는 거품이 있다. 이중 삼중의 교적을 가진 교인이 많으며, 교계에선 한국 개신교인이 1천2백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며 “또한 교인의 수나 교회당의 크기 등 조직이나 외형에선 손색이 없지만 내적, 영적 힘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 개교회주의도 강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다른 교단의 선교사가 있는 말든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한 빌딩 내에 다른 교회가 이미 있어도 그 아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결국 한국교회의 구조

적 문제점은 성장 중심적, 양 중심의 구조, 과시 행정적 구조, 결과론적 구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기존의 교회구조는 산업사회의 전형적 구조로 이미 정보사회로 진입한 세계적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 개혁의 출발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서 찾았다. 이 목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성전의 상업주의와 정교 혼합주의, 교권주의, 형식주의를 배격하신 것”이라며 “이런 예수의 개혁원리는 지금도 교회 개혁의 중요한 원리이며 교회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논할 때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

님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개혁하고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미래의 교인들은 교회의 영성적 품질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면 교단과 교파에 관계없이 교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각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의 프리미엄보다 교회의 영성적 질을 우수하게 해야 한다. 21세기는 목회기술이 아니라 목회영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새 시대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세계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의 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원로가 위고 후임이 아래라는 생각은 잘못”

## 한복협, 바람직한 사역 계승을 논하다

한국교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원로목사와 후임목사간 갈등이다. 교회에 대형화되면서 이런 갈등은 종종 교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심하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가 9일 아침 서울 도곡동 강변교회에서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에게서 듣는다’를 주제로 9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가졌다. 모법적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중앙교회와 영등포교회, 중앙성결교회의 원로, 후임 목사가 발표자로 나서 ‘올바른 사역계승’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눴다.

등에 내 이름을 그의 이름과 함께 기재하고 있다”면서 “내가 내 친부 모에게도 못한 일”이라며 후임목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후임 임석순 목사는 “원로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이며 제 목회사역에 큰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최고의 동역자”라며 “(원로목사와의 관계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이 있다. 평생을 원로목사와 사모님, 그리고 그 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

의 관계를 소개했다. 방 목사에 이어 김승욱 목사가 목회를 이어받았고, 지금은 김 목사의 후임으로 임정석 목사가 영등포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방 목사는 “내 후임목사도 이제 원로목사가 됐고, 지금은 그 다음의 목사가 담임목사라 나는 이제 영등포교회의 한 평신도라 생각하고 있다”며 “은퇴한 다음에는 후임목사에게 내 모든 일을 보고하고 지내

나는 그에게 훨씬 더 감사한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를 다닌 것이 여러 해 되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방 목사의 후임이자 지금은 원로가 된 김승욱 목사는 “내가 담임일 때 교인들의 애경사가 있으면 늘 방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다. 설교도 방 목사님께 부탁드렸다”며 “방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사정을 더 잘 아시므로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다. 교

답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 담임인 임정석 목사는 “원로, 후임목사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 생각한다. 마음으로 두 분 원로 목사님들을 부임 초기부터 아버지처럼 모시려고 애쓰고 있다”며 “겉으로만 위한다고 하면서 속마음이 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하는 못하든 겉과 속이 같아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는 절대 자신의 사무실을 교회에 두면 안 된다. 나는 설교도 안 한다. 아들과 며느리도 다른 교회로 옮기도록 했다. 원로목사인 내가 후임목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 뿐이다.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고 말했다.

후임인 한기체 목사는 “원로목사는 부흥강사로 유명하신 분이었고 나는 교수 출신 목회자로 서로 다른 유형의 영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서로 융화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원로목사는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어서 좋은 멘토요 동역자시다”고 전했다.



한복협 원레회가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에게서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했다.



중앙성결교회 원로 이만신 목사(오른쪽)와 후임 한기체 목사가 나란히 앉아 경청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 쌍방이 피차 행복한 관계

먼저 한국중앙교회 원로 최복규 목사는 원로, 후임 목사간 관계에 대해 “한 마디로 행복한 관계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님이 맺어주신 부자지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원만한 관계나 무난한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피차 행복한 관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임 청빙을 위해 ▲교회법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아쉬운 마음 없이 퇴임하게 하소서 ▲어떠한 간청, 추천,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혈연과 학연, 지연 등을 배격하게 하소서 ▲당회(청빙위원회)에서 성경과 교회법대로 결의한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소서 등을 기도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후임목사가) 민속절기나 교회절기 때마다 편지와 함께 일금을 봉투에 넣어 준다. 또한 주보나 월례, 인쇄물, 조경사의 환

는 것, 생신이나 명절에는 반드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원로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방지일 목사 “원로만 두 명, 부담 줄까봐 출석 안해”

이어 영등포교회 원로 방지일 목사가 2대에 걸친 후임목사들과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담임목사와) 조금 멀리 지낸다. 현 담임목사에겐 매년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큰 일들은 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특히 자신의 후임목사에 대해 “김 목사가 내 모든 일정을 맡아준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정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다닌다. 외국에도 이렇게 다니고 있다”며 “다른 분들이 김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을 많이 듣지만

인들도 방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후임인 임정석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나도 원로목사가 됐다. 방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 영등포교회에 일체 출석하지 않으셨다. 나 또한 은퇴한 후 따로 주택을 마련해 이사한 후부터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한 교회에 두 명의 원로목사가 있기에 새로 부임하신 담임목사에게 부

### 원로목사 사무실 절대 교회에 두지 않는다

중앙성결교회 원로 이만신 목사는 후임 한기체 목사에 대해 “지성과 영성을 갖춘 좋은 분이다. 원로목사인 내 철칙은 원로목사가 후임목사에게 결코 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후임목사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원로목사

이러 경향과 생각으로는 후임이 원로를 등에 업고 나아가기 바람직하다고 믿는다”며 “후임은 펼쳐질 앞길을 가되 지금까지의 아름다운 유산과 지혜를 항상 등에 업고 미래의 비전을 심어 가고, 등에 얹힌 원로는 에베에셀의 지혜로 앞서가야 하는 후임에게 미래에 참조할 자양분과 자산을 풍성히 없애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 LA 오토덴트

## LA AUTODENT GRAND OPEN!

### 오토덴트

&

### 바디리페어

**오토덴트란, 페인트 손상없이 찌그러진 부위를 판금, 도색없이 퍼내는 방법을 오토덴트 합니다.**



BEFORE

➔



AFTER

**오토덴트의 원리**  
오토덴트의 원리는 철판의 탄성-찌그러진 철판은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오토덴트의 필요성**  
오토덴트는 인접 철판면을 비갈쪽으로 정밀하게 밀어내는 복원작업으로 난이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분해 및 탈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구시켜 드립니다. 이 방법은 도색을 하지 않는 장점과 더불어 차량의 가치하락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흡집제거/찌그러짐/범퍼복원/코팅  
리스반납시, 기분좋은 가격으로~  
딱! 하루만에 완벽한 복원가능

LA오토덴트에서 새차를 만들어 가세요

Tel. 323-735-3180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세라노)

# “교회생활 열심일수록 의식수준은 더 저하”

정재영 교수, 생명평화마당 포럼서 주장

교회가 성장에만 집중하고 사회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공신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6일 오후 7시 충정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열린 ‘생명평화마당’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교회가 교세 확장과 건물 증축 등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급급하여 공신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생활에 열심일수록 사회에 대한 의식수준은 더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집단 안에 매몰되어, 더 넓은 사회의 지평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제는 교회가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라며 “교회 역시 지역 단체의 일원으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공동체운동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명평화마당’ 포럼에서 정재영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또한 “기존에 교회들도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복지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복음전도의 수단이었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였다”며 “지역공동체운동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주민들 나름대로의 특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역공동체운동의 과

정을 꿈 그리기, 보물찾기, 사람세우기, 공동일감찾기, 관계만들기, 민주적으로 생각하기, 더불어나누기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사례로는 생태공동체운동, 녹색가게운동, 커뮤니티비즈니스운동 등을 제시했다.

녹색가게운동은 주변의 소비물품을 교환·순환시켜 자원의 수명을 연장할

으로써, 녹색지역사회건설에 힘쓰는 지역공동체운동이다.

일례로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자선가게인 ‘행복한나눔’은 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기부하여 매장을 열고,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물품기부로 가게가 운영된다. 수익금의 50%는 지역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50%는 기아대책의 해외사업장을 통해 전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지역 내의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는 지역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밖에도 이원돈 목사(새롬교회),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참석하여, 각각 ‘교회의 새로운 생태계로서 작은 교회를 주목하자’, ‘예수살기의 교회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태진 기자

# “왜 미션스쿨이 종교 강요하는 것처럼...” 질문에 묵묵부답



8일 서울시교육청수원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신태진 기자

서울시 교육청, 공청회 개최 하며 조례 제정 수순 돌입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8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금권선거 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하다’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실질심사를 앞둔 판노현 교육감이 공약으로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적절한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기초발제와 지정토론 등 대부분의 발언자들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로 채워졌다.

조례안을 만든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은 조례의 의의에 대해 “학생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통제되고 강제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권리를 가지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경험과 판단과 성찰 위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정 취지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항의활동에 나서는 등 반대운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청은 조례가 담고 있는 ‘집회의 자유’나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교칙에 상치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각 교육감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꼭 교육감이 일일교사라도 한번 나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정작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학습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도 지적받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들의 교권 훼손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대 서명운동과 사이버 시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1차관도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는 “조례안 초안을 발표한 다음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전체토론에서 한 참석자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들은 학생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이 없어 발생하는데, 강제 배정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마치 미션스쿨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듯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지만, 주최측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대용 기자

# 예장 백석, ‘여성 목사안수’ 절차상 하자 지적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노문길 목사, 이하 백석)가 ‘여성 목사안수’와 관련된 문제를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다.

여성의 목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던 백석은 지난 2009년 제94회기 총회에서 여성의 목사안수를 전격 허용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조직, 1년간 연구키로 하면서 시행을 미뤘었다.

하지만 백석은 지난해인 제95회기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통과시키지 못했고, 결국 각 노회의 의견을 투표로 통해 수렴하자며 ‘노회 수의’를 결의했다. 그리고 지난 달 30일 실행위원회에서 발표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결국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여성 목사안수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됐고, 이에 동조한 노회들이 교단 지도부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백석의 여성 목사안수 문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

이들의 주장은 ▲각 노회가 투표한 내용이 그 자체로 수의안으로 다뤄질 수 없는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고 ▲이를 인정한 21개 노회가 수의 불참을 선언하며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표 과정에서 일괄 ‘무효’ 처리한 것은 잘못이며 ▲투표 결과의 개표가 사전에 임의로 진행돼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들은 “총회 헌법개정안만을 노회 수의안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수의안은 단순 시행방법을 다루 수의안으로 부적합하다”며 “간단히 여성 목사안수 허용 여부만을 물어야 할 것을, 법에도 어긋난 시행방법 세 가지로 투표를 진

행했다. 곧 불법을 자행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회 수의안이 통과하려면 전체 유효 투표자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엔 과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이번 결의가 무효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실행위에서 여성의 목사안수를 허용키로 결정한 이들은 “교단 헌법을 근거로 여성 안수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백석총회 헌법에는 목사안수 ‘성차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시행방법에 대한 결정만 노회로 내려보냈다”며 “당초 노회 수의는 헌법개정안만 다루게 되어 있지만 지난 총회에서 여성 안수 문제를 노회 수의하라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 시행방법임에도 총회 결의에 따라 수의를 진행했다”

고 밝혔다.

또 “지난 달 17일 직전 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현 총회장 노문길 목사 등 신·구 임원들이 만나 여성 안수 수의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수의의 결과를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측 인사들은 “여성의 목사안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여성 목사안수에 대한 찬반 견해를 떠나 총회가 각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성 목사안수가 아무리 시대적 요구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 월드비전, 통합측과 MOU로 대교회 파트너십 강화

월드비전은 6일 예장 통합(총회장 김정서 목사)과 MOU를 체결하고,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MOU체결로 월드비전은 통합측

소속 8천여 교회와 함께 국내외 재해구호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며,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비전트립을 포함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체결식에는 통합측 총회장인 김정서 목사와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렬 목사를 비롯하여,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 박창빈 부회장, 선교센터 김희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수 본부장은 “월드비전은 이번 MOU를 통해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전세계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 온누리교회, 청빙 문제로 교단에 유권해석 의뢰

부목사 청빙시 ‘타교회서 2년 이상 시무’ 규정 때문

故 하용조 목사를 대신할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후보 5명 중 4명이 교회 소속 부목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회 청빙위원회(위원장 최도성 장로)가 교단(예장 통합)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해

석을 의뢰했다. 이는 부목사는 바로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위임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사임한 뒤 2년 이상 지나야 한다는 교단법 때문이다. 현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후보 부목사들은 모두 이 법에서

축된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청빙위는 전임인故 하용조 목사가 갑자기 소천해 담임목사 유고 상태가 빚어졌고, 빠른 교회 안정을 위해 교회 사정에 밝은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

이다. 일단 총회 헌법위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능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지만,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진영 기자

#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 I -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합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3010 Wilshire Blvd #208, LA CA 90010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김세환 칼럼

### 용장(勇將), 지장(智將) 그리고 덕장(德將)



김 세 환  
LA연합감리교회 목사

손자병법의 "손무(孫武)는 장수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용장(勇將), 지장(智將), 그리고 덕장(德將)입니다. "용장"은 항상 "나를 따르라!"하는 외침과 함께 군사들을 진두 지휘하는 용맹함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두둑한 벱심과 빼 속 깊은 곳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강인함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남성적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입니다. "지장"은 뛰어난 전략과 견문을 갖춘 전략가형 장수입니다.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날카로운 식별력과 통찰력으로 부하들을 통솔하는 지적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덕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장수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수하의 부하들이 출전수범해서 움직입니다. 항상 온화한 웃음과 뛰어난 덕성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정치인들과 철학자들은 이 세 부류의 장수 중에서 "덕장"을 최고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고 꼽아 왔습니다. 오늘 날에도 지도자의 통솔력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장대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유독 "덕장"에 대해서 많은 평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품이 온화하고, "덕(德)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최고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춘 "지장"과 "용장"의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둡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사 진급 과정고시"를 치를 때, 인터뷰 중에 "당신은 스스로를 "용장", "지장", "덕장" 중 에서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

합니까?"라는 다소 감상주의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속 좁은 샌님처럼, 삐딱한 뽀새 눈으로 심사를 하시는 심사관 목사님들의 얼굴 속에 이미 "덕장"이라는 "모범 정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슬데 없는 말들을 더 했다가는 괜한 고생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덕장"이라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에 감이 빠졌는지 심사관들은 별다른 트집을 잡지 않고 금방 저를 "사자굴"에서 방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누가 다시 한 번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무릇 지도자는 이 세 가지의 항목을 다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지장), 가슴(덕장), 배(용장)가 골고루 발달해 있어야 합니다. "지장"은 너무 잔머리만 굴리는 양체 같은 느낌이 나고, "용장"은 항상 무식한 머슴 냄새가 풍깁니다. 그리고, 소위 덕장은 무능하고 게을러 보입니다. 현대에는 이 세 가지 지도력을 균일하게 다 갖추어야만 좋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이리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되 뻔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마태 10: 16)고 당부하셨습니다. 세 가지 지도력을 다 당부하셨습니다. 그 옛날 한국의 교육철학이기도 했던 "지덕체"(智德體)는 오늘 날에도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연마하고 갖추어야 할 중요한 훈련 덕목들입니다. 한 해가 영글어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옷감을 다시 한번 동여 매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학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중기 칼럼

### 성공자 다니엘의 3요소



민 중 기  
충현선교교회 목사

포로로 잡혀 온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에게 작용하여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민사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믿음의 순수성. 다니엘은 첫째로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뿌리를 붙들고 늘어진 고대의 래디컬(the radical)입니다. 래디컬이라면 급진파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리고 철저하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진리의 래디컬입니다. 요셉이나 바울도 순수한 자기훈련에 있어서 래디컬이며, 다니엘 역시 진리의 래디컬입니다. 다니엘은 친구와 더불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는 도전장을 냅니다. 제국의 종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래디컬입니다. 문화적 수용성. 다니엘의 두 번째 성공요소는 당시의 주류문화에 적극 적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브갓네살이 세운 특별왕립학교에서 3년의 교육을 받으며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민족 문화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바벨론에 필요한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언어를 비롯한 바벨론의 이질적인 문화를 익힙니다. 그들은 모든 이민 온 지식인 뿐 아니라 바벨론 출신의 현인도 신관들 보다 훨씬 탁월한 왕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의 다문화적인 상황에 철저히 적응하여 실력

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 다니엘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그가 민족을 늘 생각하고 민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하여 유대민족의 언어와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주신 민족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읽었으며, 다니엘서를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적고 페르시아의 이민 사회에 남아있지만, 귀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국제화되었지만 유대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금식기도,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다문화 속에서도 부지런히 영향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학교로 들어갔고, 교회학교도 교사를 세우고 여러 교육부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필요 좋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세 성공의 기둥을 세워주시라. 신앙의 순수성, 다문화적 수용성,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교육하십시오.

박성근 칼럼

### 틀을 깨뜨리고 오십시오



박 성 근  
LA한인침례교회 목사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fixation)"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에 매여있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늘 밖에 나가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불안해한다거나, 담배를 피운 사람이 그것을 끊게되면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니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하면 불안하

니까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고착 상태가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 습관이나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서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예컨대, 율법주의적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로 보게 됩니다. 본인의 영성이 그것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유분방하게 신앙 생활하던 사람들은 무엇에 얽매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생활은 자기 나름대로 세운 기준에 따라 할 뿐 누구의 간섭도 도움도 원치 않습니다. 약속 시간도 잘 어기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도 별로 가책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삶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케이스 이건 영적으로 고착상태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세계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아는세계, 자신들이 보아왔던 전통에만 묶여사느라고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

님을 기쁘게 했나요? 아닙니다. 결국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야 열방을 향한 바른꿈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영적 고착상태가 없는지요?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것만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외면하는 삶은 없습니까?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축제가 그러하고, 40일 새벽기도회가 우리의 일상적 통념을 깨 사건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던자들이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미지근하게 자리만 지키던 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체질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틀을 깨뜨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새 변화와 새 꿈을 시작하십시오. 살람!

# 눈이 침침하십니까?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진 무료! T213-380-0853

##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김한요 칼럼

### 타지 않는 떨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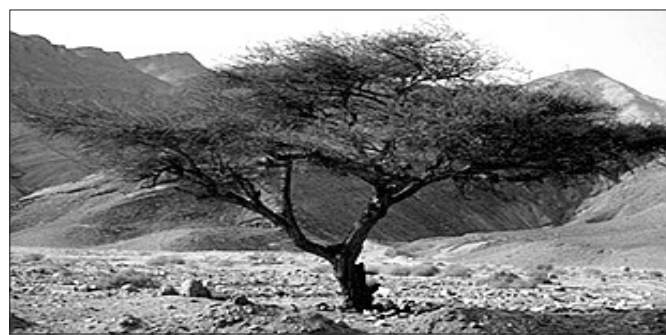


김한요  
세리토스장로교회 목사

10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된다. 건물 밖을 나올 때마다, 마치 프라이팬 위를 걸어가는 듯, 지글거리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더위를 맞으면 세탁소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강렬한 햇빛에 새까맣게 그을려 흑인인지 라티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원일을 하는 성도들도 떠오른다. 자바시장에서 일하는 성도의 공장에 마침 들렸는데, 들어갈 때 기분이 마치 군고구마 통 안에 들어가는 듯한 열기를 느꼈다. 땀에 젖은 셔츠가 역력한 성도님이 밝게 웃으면서 뛰어 나온

다.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막 에어컨을 켜 듯 아직 후덥 지근했다. 오늘 같은 날은 에어컨을 당연히 켜고 지내야 할 날씨인데, “더위에 일하는 일꾼들을 보며 저도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면서 모세가 만난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생각이 났다.

불에 분명 타고 있는데,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는 바로 성도의 정체이다. 자동차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자국을 남기며 달리는 것 같은 이런 날씨에도 결코 타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다. 자기들과 똑같이 더위를 먹고 있는 사장님을 보며 일하는 종업원들은



아마 에어컨으로도 식힐 수 없는 마음의 짜증을 시원하게 한방에 날려 보냈을 것이다. 잔잔한 감동을 받고 교회사무실로 돌아왔다. 에어컨이 꺼져있던 내 사무실은 뜨겁했다. 이내 에어컨을 켜려다가 무더위에 종업원을 생각하며 대신 선풍기로 지내는 우리교회 성도님을 생각하고, 나도 그냥 견뎌 보려고 했다. 그런데, 5분도 못가서 에어컨을 틀고야 말았다. 오늘도 나는 목사보다 백배는 나은 성도님을 섬기며 목회하고 있다는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물려온다. 지금도 땀이 나지만, 덥지 않다. 하지만 타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우성 칼럼

### 맛 중의 가장 맛있는 인생



정우성  
남주광영교회 목사

맛 중의 가장 맛있는 인생은? 모든 사람은 인생을 맛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건강, 돈, 미모, 권력, 명예, 평강 등으로 생각합니다. 이 행복을 손에 쥐기 위해 이민자의 삶은 고달롭습니다. 이민자의 꿈을 꾸며 이민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금의환향하는 것이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빵 맛을 아는 사람이 빵을 사고, 두부 맛을 아는 사람이 두부를 삽니다.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삽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맛을 알려고 많은 것을 시도해봅니다. 맛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보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것을 손에 잡은 것 같으나 막상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한번뿐이 인생이나 돌이켜 보면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사려고 반드시 어떤 댓가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를 찾아오는 옛장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큰 가위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옛을 팔려옵니다. 동네 꼬마들이 몰려옵니다. 집에 있던 찌그러진 냄비, 빈 병, 신문지, 고장난 시계, 고장난 라디오, 헌책 등을 가져오면 옛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물러온 꼬마손님들에게 맛보기로 옛을 줍니다. 저도 그 맛보기 옛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보기 옛을 먹어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부엌에 들어가 찬장 문을 과감히 엽니다. 찌그러진 양은 그릇, 옛으로 바꿀 수 있을 것들을 찾습니다. 약간 찌그러진 세수 대야는 발로 밟아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많은 옛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옛 맛보기를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가 옛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맛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서라도 이 맛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참 맛을 당신께 보여 주고 싶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34:8) “깃난아 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벤전2: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라. 나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인생의 진정한 맛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그 놀라운 정답이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예수님의 품으로!! 그 품안에 진정한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멋진 맛,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맛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김명혁 칼럼

### 기독교 정당 창당을 우려하며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정치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변혁주의'

최근에 방지일 목사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방지일 목사님께서 기독교 정당 창당을 우려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다. 그러지 않아도 욕을 먹는 판에 교회가 더 욕을 먹으려고 정당까지 만든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즉시 이영훈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고 방지일 목사님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영훈 목사님도 그것을 우려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기독교 정당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했다고 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 이야기를 방지일 목사님에게 전했더니 다행이라고 말씀했다. 오래 전에 반 정부적인 정치

적 입장을 표명하며 행동했던 박종화 목사님은 “목사가 무슨 정치냐?”고 비판하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정신 나간’ 일이라고 규정했다. 기독교는 본래 정치 경제 문화 운동을 하는 종교가 아니다. 영적이고 윤리적인 구원 운동과 사랑 운동을 펴 나아가는 종교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정치 운동을 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은 산정현교회에서 나가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한국교회의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도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종말을 강조하는 천국 복음에만 관여했다. 그래서 일부 교회사 학자들에게 비판도 받았지만 나는 교회사 학자들의 입장보다는 길선주 목사님의 입

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올바른 입장은 “반 문화주의”도 “문화 분리주의”도 “문화 적응주의”도 “문화 완성주의”도 아닌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장한 “문화 변혁주의”이지만, 정치 경제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화 완성주의”보다는 차라리 루터가 주장한 “문화 분리주의”가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잘 살아보세”라는 정치 구호와 영합하며 경제 문제에 치우치더니 이제는 진보 또는 보수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와 영합하여 정치 문제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상의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주의에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필요 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치에 치우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한심한’ ‘정신 나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마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목사님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일말의 동정심을 지니며 내가 지금 하는 말에도 혼자서 옳다고 생각하는 위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송함의 말씀을 드린다. 온전한 사람도 온전한 주장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

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구한다.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함께 우리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 6:33). 위의 글을 쓴 다음 날인 9월 5일 아침 조용기 목사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모임에 와서 설교 해달라고 해서 간 것 뿐이고 정당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 목사님이 “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고 자기 이름을 빼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세제가 없는 세상 별난 다용도 이온수기 멀티 이온아이스저가 열어갑니다.

오염된 물 ➡ 멀티이온아이스저 환경을 살리는 물

#### 멀티이온아이스저 제품 특성

- 물절약 및 환경보호
- 비누 없이 샤워 및 목욕
- 야채 과일농약 및 중금속 해독
- 화장실 냄새 제거 및 살균 효과

#### 멀티이온아이스저 적용 사례

- 탁월한 분해력(세척력, 용해력)
- 고급양복
- 피부보호 및 미용효과
- 부인병 질환

멀티이온아이스저  
제품군



## 비타민 C 샤워기

샤워물 속 염소로 인해 손상된 피부와 머리결을 비타민 C 샤워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 비타민 C 샤워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 ☞ 아토피성피부, 손상된 민감한 피부
- ☞ 건성 피부, 가려움이 있는 피부
- ☞ 물속의 염소로 인하여 생기는 비듬 방지
- ☞ 염색한 머리결과 손상된 머리결 보호
- ☞ 연약한 아기피부 보호
- ☞ 애완동물 피부와 모피 보호
- ☞ 30%까지 절수가 가능한 매카니즘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고 샤워 마사지 필터 교환이 쉽고 저렴.



엄격한 품질관리 (ISO 9001)와 미국 품질 규격인증 (UPC마크) 획득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 웨이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

4월 29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숙성과정 학생모집 (악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 모든 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료,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류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 사과 팝니다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리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 금 샵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 무료출장매입 )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였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 가나 플러밍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로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결혼꽃 전문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9월 26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두란노대학교·신학대학원**  
목회학 · 신학 ·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목사 | TEL: (213) 507 - 1933  
1008. S. Kingsley Dr LA, CA. 90006

**유인신학대학,신학대학원**  
YUIN UNIVERSITY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TEL : 213-663-8640 FAX. 213-384-7898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플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323-731-9819  
1325 12th Ave. LA, CA 90018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한가위 아이토크비비로 안부 전하세요~**  
요금 Down 기쁨 Up

새고객 보상프로그램\*  
비싼 AT&T, Verizon 집전화 아직도 쓰고 계세요?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드려요!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 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화회사의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세요. 사용을 안하셔도 매월 \$20이 초과 됩니다.)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전화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 **\$24.99** /월 (기타 수수료 별도)  
글로벌 플랜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070 전화를 필요없다! 한국 전화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없다! 핸드폰에서도 국제전화 가능(매월 500분 제공)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 아이토크비비와 비교해 보세요!

요금	iTalkBB 글로벌플랜	AT&T Complete Choice Enhanced	Verizon Freedom Value
월요금	\$24.99	\$26.00	\$52.99
미국 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장거리 추가요금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유선전화	무제한	불포함	불포함
한국 로컬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가능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가능	불가능
별도 부가금(수수료 등)	없음	있음	있음
보상프로그램	\$70	없음	없음
12개월 총 금액	\$299.88 (수수료 포함)	\$312.00 (수수료 별도)	\$635.88 (수수료 별도)

30일 환불 보장!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형내 신규 아이택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새고객 보상제도: 1년 계약 플랜 가입자에 한합니다. 계약기간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5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및 보상 받으신 총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고객 보상금액은 아이토크비비 가입하신 물량에 따라 최대 \$100까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기존 전화 회사의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신 후에 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 되거나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보상 제도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 Inc. 에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어린이들과 함께 합니다.  
T: 562.483.4300 / www.compassion.or.kr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약지에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계약비 (\$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 등 미국 해외 영토로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We know Medicare

메디케어

# MEDICARE?

### 메디케어 신청?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8개월 전부터 CMS로부터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 받게 됩니다. 만일 65세 생일 3개월 전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별도로 메디케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 자격은 65세가 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10년 이상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시 필요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일, 결혼 기념일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과 결혼 기념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솔 시니어 서비스는 시니어들을 위해 무료로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65세 생일 3개월 전까지 메디케어를 받지 못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여 드리겠습니다.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지만 메디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2011년 기준 \$15.40) 그러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하면 매달 지불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서 면제가 되며, 또한 파트 D 처방약을 받으실 때도 원래의 메디케어 플랜에서 지불 하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처방약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한솔에서는 무료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한달 개인 소득이 \$900, 부부 \$1236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1대, 집 한채, 가재도구, 장례비용 \$1,500까지는 제외됩니다. 개인 자산 개인 \$6,680 부부 \$10,020를 초과하면 되지 않습니다.

### EXTRA HELP PLAN

본인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메디칼과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EXTRA HELP 플랜을 통하여 처방약 비용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메디케어에서 지불하는 처방약 금액보다 저렴하게 처방약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메디케어 플랜에서 적용되는 도넛 홀이라고 하는 본인 부담금도 면제 됩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저희 한솔에서는 무료로 EXTRA HELP PLAN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개인 한달 소득 \$1,361 부부 \$1,839 이하이거나 개인자산 \$12,640 부부 \$26,260 이하인 분들을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Lic.#0f16211



### 메디케어 HMO 플랜이란?

HMO 플랜이란 보험 가입자가 주치의의 통하에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치의는 내과의사이지만 다른 분야의 진료 행위를 받으실 경우에도 주치의 추천에 의해 보험회사의 승인을 통하여 2차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강보험 플랜입니다. 장점은 의료행위시 본인 부담금이 저렴하여 추가적인 의료 혜택 즉 치과, 시력검사, 한방침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의료행위가 주치의의 통하에 하고 PA라고 하는 의사와 함께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플랜입니다. 물론 처방약 플랜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처방약 보험료의 지불이 필요 하지 않고, 매달 내는 의료보험료가 없이 메디케어를 100% 보장하는 플랜입니다.

### 메디케어 PPO 플랜이란?

PPO 플랜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이 일반 의사나 전문의를 직접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메디케어의 PPO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보장되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타주에서는 여행이나 친지 방문 중에 의료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6개월을 캘리포니아에서와 같이 PPO로 보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행위시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HMO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이 지불하여야 하며, 의료행위 발생시 1년에 \$300은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병원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의 보험 선택은 크게 2가지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첫번째가 메디케어 SUPPLEMENT 보험입니다. 미국 전지역에서 그 보험보장이 PPO 플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MEDICARE PART C PPO 플랜처럼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달 본인이 지역에 따라서 메디케어 부족분 20%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내어야 하며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만 거주하신다고 한다면 MEDICARE PART C PPO 플랜에 가입하는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메디칼만 가지고 있는 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11월부터는 1년에 병원 방문이 7회로 제한되며 응급실에 방문시 \$50 병원 입원시 하루에 \$100 그리고 처방약의 처방도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스러워 지려면 각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HMO PLAN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MEDI-CAL MANAGED PLAN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

캘리포니아 예산안이 연방정부의 승인 후 11월 1일부터는 메디칼의 혜택이 현저히 축소가 되며 그 이후는 메디케어만 가지고 건강보험 혜택이 보장이 됩니다. 즉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 의료비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1월까지의 본인의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새로운 캘리포니아 메디칼 예산안이 시행이 되는 11월 1일부터는 메디케어 PART C 플랜이나 아니면 각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MEDI-CAL MANAGED CARE 플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나 헬스 인슈어런스 솔루션의 데이빗 강이 메디케어에 대한 궁금증을 답해드리겠습니다!**

#### LA 사무실

\* 데이빗 강이 월, 화, 수 근무

3600 Wilshire Blvd. #1620  
LA, CA 90010

#### TORRANCE 사무실

\* 데이빗 강이 목, 금 근무

2350 W Sepulveda Blvd. #A  
Torrance, CA 90501

#### ORANGE COUNTY 사무실

\* 10월 1일 오픈합니다.

6011 Orangethrope Ave.  
Buena Park, CA 90620

**고객 문의 : 213-500-4563**

Fax. 213-386-3073, E-mail : davidmedicare@gmail.com(메일 문의 대화영)